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1시

○ 회의장소: 경북궁 한정식(가좌점)

○ 참석자: 대표이사 박보영, 이사 김은희, 이사 임철, 이사 김종옥, 이사 조성래, 이사 로그레이스희숙, 이사 김경중

○ 의제: 1.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 방산복지재단 명의변경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건물(서구 원당동 808-2)매입

4. 임원(이사)변경

5. 기타

- 2012년 12월 21일(금) 오후 1시 “사회복지법인 방산재단”의 임시이사회를 개최, 이사들의 7명(대표이사 포함) 참석하여 대표이사 박보영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대표이사 박보영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안건 상정

사무국장 엄경은이 지난 11월 23일 이사회를 통해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변동 있어 다시 심의하게 됨을 설명하고 후원금이나 차입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물매입이 불가능하며 기본재산 현금 5억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그 부분들이 수정됨을 설명하고 대표이사 박보영이 안전의의여부를 묻고 다른의견이 없어 이사 김은희 동의와 이사 김종옥의 제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대표이사 박보영

방산복지재단 명의변경 안건 상정

대표이사 박보영이 10여년간 ‘나눔의 사람들’로 모금해 왔고 ‘방산’은 좀 올드하고 복지재단느낌이 덜나고 ‘나눔의 사람들’로 명의변경하는 것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하니 사무국장 엄경은이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 본 결과 주식회사 ‘나눔의사람들’이 있으나 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는 아직 ‘나눔의사람들’명칭을 사용없어 사용가능함을 말하니 다른의견이 없어 이사 임철의 동의와 이사 조성래의 제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대표이사 박보영

기본재산의 처분 및 건물(서구 원당동 808-2)매입 안건 상정

대표이사 박보영이 개인대출로 신축건물(서구 원당동 808-2)을 다 지었는데 법인땅 위에 개인건물을 지어 법인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건축비용은 8억원정도 들었지만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기본재산 현금 5억원만 사용할 수 있어

기본재산 현금 5억을 신축건물(원당동 808-2)을 매입에 사용하는데 의의가 없는지 의견을 물으니 다른의견이 없어 이사 김은희의 동의와 이사 조성래의 제창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대표이사 박보영

임원(이사)변경 안건 상정

대표이사 박보영이 이사 박연출이 거주지가 전남이라 거리가 멀어 이사회 참석 어려워 사임을 표했다고 전하고 이사추천을 물고 이사 조성래가 임진혁을 추천하고 이력을 설명하니 다른의견이 없어 이사 김종옥의 동의와 이사 김경중의 제창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방산재단”의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다음에 기명하고 인감 날인 한다.

2012년 12월 21일



대표이사 박 보 영



이사 임 철



이사 박 재 형 (인)

이사 김 종 옥



이사 김 형 석 (인)

이사 최 진 식 (인)

이사 조 성 래



이사 김 은 희



이사 김 경 증



이사 박 연 출 (인)

이사 로그레이스희숙

